

[국제리뷰 06-6] 이슬람법에서의 여성: 파키스탄의 후두드 법 개정

조희선 명지대 아랍지역학과 교수

들어가는 말

지난 7월 7일 파키스탄의 무사라프 대통령은 1979년 군사정권 시절에 도입한 이슬람 종교법의 형법에 해당하는 ‘후두드(Hudud) 법’을 개정하라는 대통령령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후두드 형으로 수감되어 있던 여성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명령하였다. 후두드 법 하에서는 성폭행 피해자 여성이 네 명의 독실한 무슬림 남성을 증인으로 내세우지 못할 경우 간통이나 간음죄를 뒤집어쓰게 되어, 극한 경우에는 투석(投石)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매스컴을 통해 전해지는 이슬람법에 대한 뉴스는 이렇듯 이슬람이 매우 여성차별적인 종교라는 사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성폭행 피해자가 오히려 간통죄를 뒤집어쓰고 투석 형까지 당하는 것은 과연 이슬람의 기본원리에서 비롯된 것일까?

1. 이슬람과 무슬림 여성

후두드를 포함하고 있는 이슬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의 특성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슬람은 기독교나 다른 종교와는 달리 교회와 국가 간의 구별이 없다. 이슬람 사회는 근원적으로 정교일치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이슬람은 신앙체계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 생활 전반을 포함한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슬람은 내세를 위한 종교일 뿐만 아니라 현세를 위한 종교이기도 한 것이다. 기독교의 성경과는 달리 코란은 신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즉, 이슬람은 종교체제인 동시에 법,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계의 전부를 포괄하는 생활양식인 것이다.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 역시 이슬람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이자 스승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수장이자 재판관이었다(손주영 2005:319).

아라비아반도에서 출발한 정교일치의 이슬람이 7세기 이래 꾸준히 확산된 오늘날, 무슬림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13억에서 16억 정도에 이르고 있다. 지구촌 인구

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무슬림들은 약 140여개 국가에 흩어져 살고 있다. 그 중 아랍연맹에 속해있는 22개국을 포함하여 이슬람회의기구(OIC)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국만 해도 57개국에 달한다. 이렇듯 오늘날의 무슬림들은 이슬람이라는 공통분모를 제외하고는 다양한 지역이나 국가, 정치체제, 사회제도 하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무슬림 여성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그 법적 지위나 권리가 다를 수밖에 없다.

무슬림 여성의 위치와 이슬람의 여성관은 시대에 따라 많은 변천을 겪어 왔다. 이슬람 초기 여성의 위치와 그 이후 시대의 여성의 위치가 다르며, 이슬람 경전 코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상적인 여성관과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실에서의 실제적인 여성관이 다르다. 특히 오늘날 이슬람 각국 여성의 위치와 역할은 종교적인 요인보다는 국가의 이념이나 경제 발달의 수준 정도, 사회계층의 분포도, 역사적 상황 등에 의해 많이 좌우되고 있다. 파키스탄에서 죄 없는 여성들이 후두드 법 하에서 간통죄를 뒤집어쓰는 반면, 다른 이슬람 국가에서는 강간범을 엄히 다스리는 형법을 두고 있다. 이렇듯 무슬림 여성의 위치와 법적 지위는 시대에 따라 그리고 오늘날에는 국가에 따라 다르게 자리매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슬람 원리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코란에 담겨 있는 여성관이야말로 이슬람의 여성관을 잘 들여다 볼 수 있는 유일한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코란의 여성관

코란에는 남녀평등을 주지시키는 많은 구절이 등장한다. 성경과는 달리 코란은 남녀의 공동창조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브를 유혹과 악의 원천으로 간주하는 인간의 원죄신화를 거부하고 있다. 코란은 신에 대한 불복종의 원천을 이브가 아니라, 바로 아담과 그의 배우자를 악의 길로 유혹한 사탄으로 보고 있다. 또한 코란에는 여성과 남성이 모든 기본적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보상과 처벌에서도 동등하다고 언급되어 있다. 혼인 문제에서도 여성은 청혼을 거절할 수 있다. 여성의 혼인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기는 하나, 혼인 당사자인 여성이 원하지 않는 혼인을 후견인이 강제할 수는 없다. 혼인 시 여성에게 지급되는 마흐르(mahr, 혼납금)는 신부의 소유가 되며, 혼인 후에도 여성은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아내가 먼저 이혼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내는 혼인 시 받은 마흐르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남편에게 지급하면 된다. 또한 코란은 여성의 상속권과 아울러 상속의 몫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조희선 2005: 88-90).

남녀평등 사상과 더불어 코란은 여성과 남성의 유별을 명시하는 구절도 담고 있다. 코란은 ‘남성이 여성의 상위’에 있다고 언급하며, 또한 남성이 ‘여성의 보호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인의 자격에 있어서도 간통과 같은 후두드에 해당될 경우 여성의 증언은 효력이 없다. 그리고 여성 두 명의 증언은 남성 한 명의 증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코란은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육체적으로 강하여 여

성을 보호하고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적 의무에서도 여성은 월경이나 분만 시에 예배와 단식이 면제되며, 임신이나 수유 시에도 단식이 면제된다. 경제적인 의무나 상속에서도 남녀가 구별된다. 대체적으로 여성이 남성 몫의 2분의 1을 상속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코란은 남녀평등을 주지시키는 구절과 더불어 남녀의 유별을 언급하는 구절도 담고 있다. 코란의 이러한 모순된 내용은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무슬림 남성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대로 코란의 내용을 취사선택하여 가부장적인 제도를 더욱 강화할 수 빌미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코란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남녀의 차별이나 유별을 언급하는 일부 구절을 제외하고는 남녀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압도적이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하디스(Hadith, 언행록)도 “천국은 어머니의 발아래에 있다,” “가장 좋은 선행 가운데 하나는 여성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등과 같이 여성우호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유복자로 태어나 여섯 살의 나이에 어머니까지 잃었다. 유력한 가문 출신이기는 하였으나 자신을 보살펴줄 조부까지 사망하자 무함마드는 고아와 비슷한 삶을 살았다. 무함마드에게 청혼하여 평생 예언자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했던 첫 부인 카디자(Khadijah)에 대해 무함마드는 평생 은혜를 잊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함마드의 이러한 성장 배경은 코란에 수없이 등장하는 고아와 여성에 대한 배려와 무관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이슬람에서 보장된 여성의 재산권과 상속권은 서구학자들도 인정할 정도로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다.

3. 이슬람법 샤리아와 여성

종교지도자이자 정치인, 입법가였던 예언자가 살아 있을 동안 이슬람 공동체에서는 법이 필요하지 않았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무함마드는 계시를 통해 이슬람 공동체를 원활하게 통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함마드 사후 이슬람 공동체가 팽창되고 사회가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이슬람 공동체를 관장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이슬람 법학자들은 10세기 경 코란과 예언자의 언행록 하디스, 법학자들 간의 합의, 유추 등을 토대로 이슬람법 샤리아(Shari'ah)를 완성하였다. ‘신을 따르는 길’을 의미하는 샤리아는 이슬람의 속성과 마찬가지로 무슬림들의 삶의 정신적 측면과 육체적 측면을 동시에 구속하도록 고안되었다. 따라서 샤리아는 세정 의식, 예배, 회사, 단식, 순례 등 종교적인 실천의 의무와 신앙의 원칙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 즉 개인의 지위, 결혼, 이혼, 가족구성관계, 재산과 상속의 취득과 분배의 문제, 상거래 행위 등 개인 및 공동체 생활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후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소위 서구에서 말하는 가족법, 상법, 형법 등이다.

예언자 무함마드 시대와는 달리, 그의 사후 무슬림 여성의 위치는 격하되기 시작하였다. 이슬람 공동체가 비잔틴, 사산제국 등을 점령하면서 여성차별적인 사회제도와 문화가 유입되었다. 피정복민의 숫자가 아랍인 혈통의 무슬림 숫자를 훨씬 상

회하자, 아랍인의 문화는 피점령지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더군다나 종교를 해석하여 법제화시킨 법학자나 신학자의 상당수가 非아랍인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또한 도덕적, 정신적 세계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소외된 이슬람제국은 자연스레 남성중심주의 사상에 젖어 있던 정치인이나 종교인, 법학자들에 의해 다스려졌다. 정치인과 결탁한 종교인들이 코란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여성에게 불리한 이슬람법이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이슬람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족법에서의 여성의 위치와 권리는 코란의 기본정신과는 동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4. 이슬람 형벌 후두드

이슬람법 샤리아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형법에 해당되는 후두드이다. 후두드(hudud)는 ‘제한’을 의미하는 아랍어 핫드(hadd)의 복수형으로 무슬림의 모든 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슬람법은 형벌을 후두드와 타으지라트(ta'zirat)로 구분한다. 후두드는 코란에 기초하여 신성하게 명시된 것이고, 타으지라트는 판사의 판단과 재량에 따른 것으로, 오늘날까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로 후두드이다. 후두드와 관련하여 법학자와 법학과 간에는 그 적용을 놓고 이견이 분분하다. 후두드 형벌의 예를 들면, 절도는 손 절단형, 우상숭배는 태형 100대, 간통은 태형 100대 또는 죽을 때까지의 투석형, 부정행위에 대한 무고죄는 태형 80대, 음주는 태형 40대나 80대, 살인 및 강도행위는 사형, 팔다리 절단형, 추방 등에 처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이슬람사회에서 실제로 후두드의 형벌은 좀처럼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Madkoar). 단지 후두드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기능으로 작용해 왔던 것이다. 예를 들어 간통자에 대한 태형이나 투석형의 경우, 형벌은 피의자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한 시행되기 어렵고, 혹은 네 명의 확실한 증인들이 그 피의자에 대해 증언하지 않는 한 이행될 수 없다. 보통 사적으로 저질러지는 범죄행위에 대해 증언해줄 네 명의 목격자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손주영 2005: 360). 샤리아의 시행에 엄격한 극소수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이슬람세계에서 태형 역시 사라져 버린 제도이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많은 이슬람 국가들은 식민시대를 거치면서 서구식 법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이슬람법 샤리아는 포괄적인 시스템이 아닌 가족법과 같은 아주 한정된 분야에서만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오스만 터키인들은 후두드 형벌을 폐지하고 프랑스 형법으로 대체시켰다. 유럽의 식민지를 경험한 여타 이슬람 국가에서도 터키와 마찬가지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법이 소개됨으로써 샤리아의 적용범위가 제한되었다. 당시의 개혁주의자들은 시대 상황에 맞게 이슬람법을 재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럽 열강에 의한 식민시대가 끝난 직후, 대다수 이슬람 국가들은 유럽법과 이슬람법을 절충한 혼합형 법체계를 채택하거나, 아니면 선

진화된 서구 법을 그대로 이어 받는 양자택일을 하였다. 이슬람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수단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

이처럼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샤리아를 가족법으로 한정시키고 다른 분야에서는 서구 법을 도입하였지만, 1980년대 이후 이슬람세계에 이슬람근본주의가 확산되자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샤리아로의 회귀가 이슬람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파키스탄과 말레이시아와 같은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후두드 법이 부활하여 엄격하게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5. 후두드의 오용

오늘날 파키스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후두드 형벌 가운데 간통에 대한 투석형은 분명 코란의 정신과는 동떨어진 가부장제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강간당한 여성을 오히려 간통죄로 기소하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여겨지는 코란 24장 4절은 사실 성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정숙한 여성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는 자들(남성들)이 네 명의 증인을 대지 못할 경우, 그들(남성)에게 80대의 태형을 가하며, 이후 그들(남성)의 증언도 거부하라. 이들은 사악한 범죄자들이다.” 이 구절은 불신자들이 예언자 무함마드의 부인 아이샤('Aishah)의 정숙에 대해 중상모략을 한 데서 비롯되었다. 무함마드의 원정길에 동반한 아이샤가 중도에 혼자 떨어지게 되었고, 예언자의 한 교우가 그녀를 자신의 낙타에 태워 원정대가 머물렀던 다음 기착지로 데려온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아이샤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헛소문이 퍼지자, 여성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네 명의 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신성한 계시가 내려졌다. 코란이 살인에 대해 두 명의 증인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여성의 부정행위 처벌에 네 명의 증인을 명시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파키스탄을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등지에서는 정반대의 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들 국가의 후두드 법에서는 강간에 대한 증거로 네 명의 성인 남성이 직접 목격하였다는 시각적 증거나 혹은 고발당한 가해자의 자백을 규정하고 있다. 의학적 검사 등을 통하여 성접촉이 입증될 경우, 고발당한 사람은 무죄가 될 수 있으나 피해자인 여성은 간통이나 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선고된다. 강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피해자인 여성에게 있으며,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강간이나 간통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코란의 기본원칙은 강간이나 간통죄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오용되는 후두드 법은 여성들에만 범죄의 결과와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죄 없는 많은 여성들이 희생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맺음말

이렇듯 오늘날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적용되는 후두드 법은 이슬람의 원리와는 관련이 없는 가부장제도의 산물이다. 현실적으로 후두드 법은 부모의 의지에 따라 혼인하지 않는 딸, 재혼한 전처를 되찾으려는 남자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 후두드 법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법이 신에 의해 규정된 신법이라고 주장하지만, 후두드를 규범화하고 성문화한 것은 인간이다. 후두드의 잘못된 적용은 결국 코란의 기본 정신을 해치는 것이며 이슬람의 원리에서도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이슬람법을 고수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수단, 이란 등에서 후두드 형벌이 집행되었다는 사례가 보고되지 않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참고문헌

손주영, 『이슬람 교리』, 사상, 역사, 일조각, 2005.

이원삼, 『이슬람법사상』, 아카넷, 2001.

조희선, 『무슬림 여성』, 명지대학교출판부, 2005.

Mohammed Salam Madkoar, "Human Rights from an Islamic World: An Outline of Hudud, Ta'zir & Qisas," <http://www.iol.ie/~afifi/Articles/hrights.htm> (2006년 8월 11일 접속).